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 Private Presidential Foundation

이 영 지 (young ji Lee)**, 오 계 윤 (gaeyoun OH)***
정 상 준 (sang jun Jung)****, 윤 은 하 (Eun Ha Youn)*****

목 차

- | | |
|---------------------|--|
| 1. 서론 | 5. 국내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서비스 |
| 2. 선행연구 | 6.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서비스 비교분석 |
| 3. 연구방법 | 7. 결론 |
| 4.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 |

<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현황 및 서비스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을 대상으로 소장 기록물, 온·오프라인 서비스, 법·제도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지닌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과 두 기관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관, 통합 대통령기록관,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기록정보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service of the Unified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 civilian memorial hall, which manages the country's presidential records. For this purpose,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individual private memorial halls were surveyed on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online and off-line servic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records. Based on this,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Unified Presidential Archives and individual private memorial hal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fied Presidential Archives and individual private memorial halls and that the two agencies sought basic research to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

Keywords: Presidential archives, presidential archives, unified presidential archives, private presidential memorial foundation, records information services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13575).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youngd0514@daum.net) (제1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gaeyoun5@gmail.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fpxltm07@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연구원 (eunhayoun@gmail.com) (교신저자)

■ 접수일: 2018년 10월 29일 ■ 최종심사일: 2018년 11월 5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10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69-97,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4.069>>

1. 서론

대통령기록물은 한국 대통령직의 위상의 중요성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제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생산하는 기록물은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은 다른 공공기록물보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의 보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소속으로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집·분류·평가·폐기 등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의 규정에 따라 전시·홍보 등의 박물관 및 교육의 기능 강화와 이용자의 대통령기록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측면은 과거 전통적 기록관의 역할인 수집과 보존의 개념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념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더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의 수집, 보존, 연구 보조기능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역사와 민주주의 교육, 대통령기록의 전시와 박물관 운영이라는 부차적 기능이 포함되면서 다기능적인 기록관으로 발전했다.

국내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과 외에도 전직 대통령기록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간

재단 운영의 대통령 도서관 및 사료관이 있다. 이러한 민간재단 운영의 대통령 도서관 및 사료관(이하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대통령기록물법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에 관한 기록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이용자를 위한 기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현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서비스 측면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활발한 연구 현황에 비해 민간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대통령 도서관 및 사료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사례를 통하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각 분야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내 대통령기록물의 미래와 가치를 보존할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서비스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국내의 통합형 대통령기록관인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기념관·도서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정보서비스의 제공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선행연구

를 수행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의 선행연구는 크게 설립 및 운영, 이용자 서비스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첫 번째로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들 수 있다. 이상민(2001)은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제도 및 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방식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 대통령기록관은 독립적이며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말하였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와 기록물의 양을 판단하였을 때 역대 대통령 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향후 공적 소유권이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이 대량으로 수집되는 시기가 발생할시 정부기록보존소의 기구 확대 또는 독립된 대통령기록관을 건립될 수 있음을 말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될 경우 연구기관인 민간 대학에서의 대통령기록관 건립계획 및 기금을 유치하는 것이 건전한 대안이라 제시하였다. 강민정 외(2015)는 기록물 수집 시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 수집정책을 국내와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물과 박물관 구분한 이원체제의 수집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에 따른 인물중심의 운영은 대통령기록물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의 대통령기록관 역시 대통령에 따른 개별적 수집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는 기록정보서비스, 전시 및 체험서비스, 교육서비스

로 나뉘어진다. 첫번째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영(2011)은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관의 웹사이트 검색어 분석을 실행하여 이용자들이 대한 기록정보서비스의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정현 외(2015)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검색시스템과 온라인콘텐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LOD(Linked Open Data)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였다. 방기영 외(2015)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웹 기록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지현(2013)은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및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약을 시도하였으며, 미국의 13개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및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콘텐츠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김태영(2014)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한 심층적인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여섯 가지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전시 및 체험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로는 국외의 대통령기록관과 국내의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와 스토리텔링 및 체험경제 이론을 활용한 대통령기록물 전시방법, 대통령기록관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전시 기록물을 대상으로 3D VR 기법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의 구현방안을 제안한 연구 등

대통령기록관의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이혜원 외, 2015; 이재나 외, 2015; 송나라 외, 2016; 장효정 외, 2015; 유호선 외, 2017). 세 번째로 대통령기록관의 교육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로는 대통령기록물 온라인콘텐츠를 구축 및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모바일 교육 콘텐츠 개발(김술, 2013; 최민희 외, 2016),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김태영 외, 2013; 송나라 외, 2017; 김은실 외, 2017), 대통령기록관의 교육서비스 모형 제안(심갑용 외, 2015)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민간재단에서 운영되는 대통령도서관 및 기념관의 설립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유사한 역할을 지닌 개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조민지(2009)의 경우 개별로 운영되는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의 역기능을 연구하였으며, 통합형으로 설립되는 국내의 대통령기록관의 실정상 미국식 대통령기록관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명문화된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설치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용오(2011)는 통합대통령기록관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국내의 통합대통령기록관의 경우 국내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 관리 되며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확한 지침에 의해 운영된다. 이 때문에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석 대상인 민간 대통

령기념관·도서관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리 및 운영되는 통합대통령기록관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의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재단의 주도하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및 운영된다. 두 기관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민간 대통령기념관·도서관 역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중요 기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 대통령기념관·도서관의 대통령기록물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조항이나 지침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대통령기념관·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형 대통령기록관인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운영 대통령도서관 및 기념관의 서비스 제공현황을 비교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 활성화 및 대통령기록물을 보유한 두 기관에서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기념재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그 차이점을 알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문제 1.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현황 법·제도, 기록물의 유형·특징은 어떠한가?
- 문제 2.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온·오프라

인 서비스 현황 법·제도, 기록물의 유형·특징은 어떠한가?

- 문제 3.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법·제도의 차이점 및 서비스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기록물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록물의 특징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에 위치한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와 소장 기록물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후 국내 민간 대통령 기념·기록·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충분한 규모를 지닌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기록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대통령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과 오프라인 서비스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대통령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록관에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 등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 외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또한 조사하였다. 이들 기록관이 규모가 비교적 작고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망라하여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들 기

록이 가지는 가치에 주목하고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해당 기관을 포함하여 현황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하였고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가지는 법률, 제도, 기록물의 특징 등을 비교하였다.

4.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4.1 통합 대통령기록관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각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시작한다.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에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목적과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와 기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 한편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에 적용되는 법률은 대통령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더라도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적용되는 법률과는 상이하다. 현재 법률에서 민간 기념관의 운영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 대통령의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을 설립할 때 재정 및 기타 사항 등을 정의하고 있고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간 기념재단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해당 법령에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단지 1개 조문만을 두고 있으며 관리대상 및 역할에 대한 구분도 그다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대통령기록관, 2015). 하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궁극적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건립되려면 위의 법령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적용되는 법령을 살펴보고,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쟁점과 시사점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대통령기록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별도로 두었던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 명시하며 대통령이 외국정부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기록물에 대하여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등 현재 대통령기록물 서비스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통합 대통령기록

관은 비록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대한민국식 통합적 운영으로 미국과는 다른 장·단점을 가지게 되었다(대통령기록관, 2015).

먼저, 통합적 운영의 장점은 국가 소유인 대통령기록물을 경제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에서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다수 건립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오고 있으며,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는데에도 논란이 존재해왔다(국가기록원, 2007). 이에 반하여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국민의 입장에서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형태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통합 활용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가능하며, 대통령기록관이 개별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국가기록원, 2007).

하지만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단점은 바로 통합과 기관의 소속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기관으로 전임 대통령이 퇴임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뀐 정권에 의해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용오, 2011). 이러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객관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할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오히려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정용오, 2011).

4.2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는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의 개괄적인 내용 대신 법·제도가 서비스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을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오프라인 서비스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모든 대통령의 기록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전시서비스가 각 층별로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미국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공정한 기록관이 아닌, 선거광고의 전시장이나 단순 박물관 같다는 지적이 많았지만(조민지, 2009)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특정한 대통령을 우상화 시키지도 않으며 특정한 대통령에게 편중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 개관 이후 10여 년간 대통령기록물이 정권 교체 및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기록물 서비스에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태생적 한계를 노출하였다(대통령기록관, 2018). 2018년 대통령기록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특성상 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 및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거나 홍보물 제작 시 다른 요소보다 대통령 간 형평성을 우선으로 고려되고 있으며(대통령기록관, 2018), 이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가지는 단점이자 전시 서비스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는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대통령기록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민감성,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또한 해당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기록물 온라인콘텐츠 중·장기 개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문제점으로 대통령별 소장기록물의 질적·양적 편차와 대통령별 형평성을 고려한 콘텐츠 구축의 한계를 꼽고 있다. 특히 기록물의 내용 및 소장량과 무관하게 대통령별 동일한 콘텐츠를 구축함에 따라 다양한 소재발굴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행태는 다른 공공기관의 공공기록이나,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과는 차이를 보이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전시 서비스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전시는 상설전시관의 공간적 제한과 상설전시가 갖는 주제의 한정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호평 받고 있다(국가기록원, 2013). 기획전시를 통해서 관람 대상과 전시 목적에 따라 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등에 있어서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기존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가기록원, 2013).

〈표 1〉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 수량

	합계(건)	문서류		시청각 (전자+비전자)	행정박물 (선물포함)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	간행물, 도서 등
		비전자	전자					
이승만	93,673	24,828	-	64,942	16	-	-	3,887
허정 (권한대행)	288	173	-	-	-	-	-	115
윤보선	3,608	3,002	-	294	-	-	-	312
박정희	76,185	59,878	-	15,349	561	-	-	397
최규하	33,655	8,369	-	19,552	2,282	-	-	3,452
박충훈 (권한대행)	49	48	-	-	1	-	-	-
전두환	99,651	42,770	-	55,681	643	-	-	557
노태우	48,009	38,695	-	8,715	388	-	-	211
김영삼	136,395	97,093	-	34,619	3,159	-	-	1,524
김대중	930,786	311,822	-	146,767	2,141	56,877	411,876	1,303
노무현	7,912,235	548,652	758,567	736,580	2,271	883,921	4,971,158	11,086
고건 (권한대행)	1,845	257	-	1,549	-	-	-	42
이명박	10,879,864	436,830	592,123	1,407,352	3,496	3,298,129	5,134,137	7,797
박근혜	11,229,088	175,352	545,688	1,587,211	1,394	4,985,022	3,931,042	3,424
총계 (건)	31,445,331	1,747,769	1,896,378	4,078,608	16,307	9,223,949	14,448,213	34,107

본 장에서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해당 법령으로 인하여 나타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장점과 단점은 뚜렷하면서 운영과 서비스에서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미국식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될 수 있다. 여러 논의를 통해 한국 현실을 감안하여 통합형 체제로 결론을 지으면서도 미국식 개별대통령기록관 기부채납 가능 조항을 대통령기록물법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 개별기록관 제도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민지, 2009).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국내의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에 대해 분석하고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5. 국내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서비스

5.1 국내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현재 민간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사례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 의해 건립이 주도되며 기부채납을 통한 국가의 운영으로 구성된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는 국가가 전담하는 반면 전시와 교육 등의 서비스는 민간이 주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러한 방식은 국가와 민간재단의 협업 방식으로 효율적인 통합 기록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

〈표 2〉 해외 개별 대통령기록관 현황(정용오, 2011)

	미국	영국	호주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적용법률	대통령기록관법 대통령기록물법	-	-
기록관형태	개별	개별	개별
기록관 수	13개	1개	4개
건립주체	민간재단	민간재단	민간재단
운영주체	민간재단과 NARA 연합 운영	민간재단	민간재단
예산	NARA 예산과 민간 재단 기부금 및 수익사업	민간재단 기부금 및 수익사업, 정부 일부 지원	민간재단 기부금 및 수익사업, 기업 스폰서
인력	아키비스트, 큐레이터, 교육전문가 등	아키비스트, 보존전문가	사서
기능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중심	아카이브 중심

한 기록서비스 관련 민간 인력 및 자원 활용 가능성으로 국가 운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 대통령별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 대통령기록물법 조항 내에서 해외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운영과 같이 기부채납 가능 조항을 둔 것은 국내 역시 개별기록관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대부분의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민간재단의 운영만으로 국내 법령에 나타난 기준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큼으로 해외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기록물 수집·전시 등의 개별 대통령기록관과 유사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민간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통령 기념재단은 개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대통령의 치적이나 과업만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민간 대통령 기념

재단은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가 아닌 해당 대통령의 후원자들이 기금을 모아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전직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관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경우 전시 콘텐츠 제작과 구성에 있어서 통합 대통령 기록관과 같이 형평성의 고려가 아닌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록콘텐츠 제작과 전시 구성을 모색하는데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비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부상하는 기록 패러다임 속에서 관련 기록물이 이용자에게 더욱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비교하였을 때,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만이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 대통

령기록관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만 생산된 한정적 범위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반면,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대통령 재임 중 기록물과 함께 재임 전후의 기록물 역시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즉,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비하여 기록의 수집 범위에 있어서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대통령의 전 생애에 걸치는 전반적인 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포괄적인 기록물 수집 범위에는 대통령에 관한 시민들의 개인 소유의 기록물 또한 포함하고 있다. 특정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개인 기록물로는 사진, 편지, 영상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특징적인 기록물은 추모기록과 구술기록이다. 구술기록은 행위에 대한 맥락을 실어줌으로써 대통령 개인과 그의 행정부 및 한국현대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김지수, 2008). 또한 추모기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역사(Alternative history)의 속성(김진수, 2016)을 지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록물임을 의미한다. 특히 추모기록은 오직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에서만 관리될 수 있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개별 대통령을 위해 건립된 기관으로 전직 대통령의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방문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의 법적 권리와 연관이 있으며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과 기관의 자유로운 방문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용이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부가적인 기능은 기관의 지역 관광명소로서의 활용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도모이다.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경우 해당 대통령의 생애와 관련된 장소에 건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가 위치한 봉하마을은 매년 약 1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김해시는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노무현 생가 및 사료관의 서비스 질의 향상과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지역과 기관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비교하였을 때 좀 더 넓은 범위의 기록물 수집의 가능성과 기관 및 기록관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관과 함께 대부분 지지자에 활동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과 이들의 방문을 통한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위치한 지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 민간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대통령 기념 재단, 도서관 및 사료관을 분석하였다.

5.2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도서관은 2003년 11월 아시아 최초로 개관한 대통령도서관이다. 김대중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이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아태재단의 건물 및 노벨 평화상 상금을 연세대에 기증함으로써 탄생하였다. 김대중 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직 대통령 관련 전문 학술기관으로

써 통일학 연구소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구현, 빈곤 퇴치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김대중 도서관의 경우 연세대학교 자체 규정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며 ‘김대중 도서관규정’ 제3조¹⁾에 의거 하여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규정에서 나타나는 김대중 도서관의 기능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기능과 유사한 점이 나타난다.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22조 2항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분류·평가·기술(記述)·보존·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제22조 5항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전시·교육 및 홍보, 제22조 6항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제22조 7항 제26조에 따른 개인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제25조 2항²⁾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판별할 수 있었다. 김대중 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학창시절부터 민주화운동 등 재임 기간 전의 개인기록과 대통령 재임 시절의 사진과 친필 자료 및 노벨 평화상, 각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과 같이 다양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대통령기록관 설치·운

영 방안 연구, 2007). 이처럼 김대중 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전시, 사료, 교육, 연구, 대외협력을 기점으로 5가지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대중 도서관의 서비스 현황분석을 위해 김대중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5가지 주요 사업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김대중 도서관의 전시서비스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김대중 도서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전시관 투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오프라인 전시서비스는 1층 상설전시실, 2층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관람의 경우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의 단체 관람의 경우 김대중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2주 전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단체관람 시, 전시관 해설을 제공한다. 만약 개인 관람 시 전시관 해설을 이용하려면 김대중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DA 가이드가 제공된다(이혜원 외, 2015). PDA 가이드는 도서관에 대한 소개, 전시실별 관람 안내 콘텐츠,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전시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음성으로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관 투어 서비스는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전시실과 특별전시실의 전시품목을 디지털화하여 김대중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 전시서비스의 제공은 이용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

1) 제3조 (업무) ① 도서관은 대통령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보존·관리·전시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 출판 등을 통하여 대통령 기념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 2. 16]
 ② 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세대학교 이외의 기관, 단체 및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 봉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범위, 열람의 방식, 자료의 대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②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10. 2. 4]

하지 않더라도 기록물의 유형과 특징을 편리하게 작용한다. 김대중 도서관의 경우 '민주화를 향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세계 평화를 꿈꾸는 김대중', 총 3개의 주제의 온라인 전시관 투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전시관 투어 서비스를 관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실제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 주제에 따라 세부주제가 설정되어 온라인 전시서비스를 관람하는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도서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전시서비스와 비교하여 전시공간의 규모적 측면에서의 차이는 존재하나 역대 대통령 모두를 대상으로 다루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비해 한 명의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심도 깊은 전시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전시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음은 김대중 도서관의 사료서비스 현황이다. 김대중 사료관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대통령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수집 자료의 유형은 문서자료, 박물관자료, 시청각 자료, 구술자료, 도서 등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기증한 장서 1만 6천여 권과 국정 운영 사료,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관련 자료 역시 수집하며, 다양한 기록을 기증받고 있다. 김대중 도서관의 사료 보유현황은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이 중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1934년부터 1940년까지 통지표, 임명장, 각종 상장 등 총 16점의 김대중 대통령 유소년기 학교 관련 사료와 1970년 10월부터 1971년 3월 29일까지 작성된 25건의 연설문 등 대선 관련 사료, 김대중 1차 미국 망명 시기(1972.10~1973.08)의 김대중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 기록한 사료, 2차 망명 시기(1982.12~1985.02)의 신문, 팸플릿, 인터뷰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사료, 1979년 10.26 사건 발생 후 김대중 구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 등 재임 기간 전 생산된 다양한 유형의 사료를 보유하고 있다(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 2007). 또한 보유하고 있는 사료 중 주요 사료들은 디지털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김대중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사료관을 통해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다. 디지털화된 주요 사료에 대한 현황은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표 3> 김대중도서관 사료 보유현황

기간(연도)	사료	보유량(권/점)
1934~1997	김대중대통령 기증사료	126,099
1968~1998	북미 민주화 인권운동 사료	300,000
1970~1987	미국 공공기관 수집자료	15,400
1973~1983	일본 민주화 인권운동 사료	1,000
1997~2003	국민의 정부 공식 사료	10,000(추정)
-	김대중대통령 기증 장서	16,099
-	구술사료	88

〈표 4〉 김대중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보유현황

구분	문서사료	사진	오디오	비디오	박물류	기타
총 건수	22	43,790	1	0	0	0

〈표 4〉를 살펴보면 제공되는 총 건수는 43,813건으로 방대한 사료를 제공하는 듯 보이나 사진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김대중 대통령 관련 기록물 보유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온라인사료관(대통령기록 연구실)의 김대중 대통령 관련 기록물 유형 및 보유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김대중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문서사료(연설문, 정책기록 941건)가 나타났으며, 동영상(28건), 오디오(5건)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생산된 문서기록은 대부분 통합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며, 민간 대통령 기념관의 경우 기록물의 수집 범위가 대통령의 전반적인 생애에 걸쳐있기 때문에 생산 및 디지털화가 비교적 쉬운 편인 사진 기록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대중 도서관은 주요 사료를 활용하여 ‘사료해제 시리즈’, ‘구술사 프로젝트’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사료해제시리즈의 경우 김대중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사료 중 주요 사료를 주제별, 기증자별로 소개하는 시리즈이며, 김대중 도서관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사료해제시리즈는 총 8건이 제공되고 있다. 구술사 프로젝트의 경우 김대중 도서관의 사료수집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진행한 구술채록 사업의 결과물이다. 김

대중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술 자료는 총 21건으로 이는 모두 영상으로 채록되어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도서관과 같은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경우 특정 대통령에 대한 전문성과 지지자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비해 특정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 수집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기관적 특성은 특정 대통령에 대한 구술기록의 수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대중 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연보를 디지털로 구축하여 제공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사뿐만이 아닌 한국의 현대사와 정치사를 포함하고 있는 총 9,021일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대중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대중 도서관은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달리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의 전 생애에 걸친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도서관은 김대중 연보를 통해 기록물을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 연도별로 분류하여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여러 명의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달리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만을 관리하는 민간 대통령 기념관의 특

정으로 볼 수 있다. 즉, 김대중 도서관은 전 생애에 걸친 김대중 대통령만의 기록물을 수집하기 때문에 연도별 분류에 있어서 더 용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도서관은 교육 및 연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민주주의, 한반도 통일과 평화와 관련 각종 프로그램과 대중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중 도서관의 산하기관인 김대중 평화아카데미 주최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 강좌 개설되며, 연세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김대중 평화강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글쓰기 특강, 종교, 인터넷, 회화 등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는 문화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김대중 도서관은 연구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발간물을 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간된 자료는 총 34건이다. 김대중 도서관은 학술단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 및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를 초빙한 국제회의를 개최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중 도서관 주최의 대표적인 정례 국제회의로는 6.15 국제학술회의, 노벨 평화상 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5가지의 주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외교, 남북관계 등 한국 현대사에 새겨진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을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대표적인 사료 기관을 추구하고 있다.

5.2.1 운영 및 서비스 특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세대학교에 기증되어 운영되고 있는 김대중 도서관은 국내 최초

로 개관한 대통령도서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에 관하여 전시, 연구, 교육, 출판 다양한 분야에서 대통령의 사료와 기록을 활용한 핵심사업을 진행하는 전문적인 학술기관이다. 김대중 도서관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산하에 김대중 평화연구소, 국제협력센터, 사료센터, 전시 센터를 두고 있으며, 특히 통일학 분야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하여 연구사업을 확장 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도서관의 전문성 및 특수성은 소장 및 서비스되는 기록물을 통해 확인이 된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기록물의 수집범위이다. 김대중 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현대사, 정치사와 관련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물까지 수집하고 있다. 즉, 김대중 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 전반을 다룬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집 및 관리함으로써 포괄적인 기록물 수집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는 주제, 유형별의 분류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연도별 기록물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구술기록의 수집과 서비스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을 풍부하게 관리하여 보존하는 것을 동시대의 주요한 사회상을 기억(memory)으로 보존하는 유력한 방법이 된다(김지수, 2007). 이러한 점에서 구술기록은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대통령기록물, 즉 문헌기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구술기록은 문서화된 기록에 나타난 단편적인 사실 너머의 다양한 시각의 기억을 보여줄 수 있다. 이처럼 구술기록의 특징은 행위에 대한 맥락을 실어줌으로써 대통령 개인과 그의 행정부 및 한국 현대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김지수, 2008). 김대중 도서관의 구술기록 역시 앞서 기술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도서관은 다양한 영역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전, 중, 후의 기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도서관은 운영과 관리의 영역에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같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기록물관리의 체계적인 틀이 잡혀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김대중 도서관의 이러한 실정은 예산과 관리의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나타난다.

과거 김대중 도서관의 개관 당시에는 대통령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산과 관리의 문제로 자료들을 연세대 학술 도서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전시관 기능을 강화하여 2006년 이후 김대중 도서관은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전시관의 형태를 띄게 된다.

5.3 노무현 사료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이하 노무현 재단)은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와 업적을 선양하고, 계승·발전시켜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다. 재단법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서울에 25명, 봉하마을에 10명의 운영 구성원을 두고 있다. 노무현재단의 주 활동은 관련 추모·기념·문화 행사 개최, 사료편찬 및 연구·편

찬사업, 지역위원회 사업 및 회원 활동 지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기념시설 건립 및 추모기념 시설 운영 등이 있다.

2010년에 개관된 노무현 대통령 추모의 집은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알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추모공간은 노무현 재단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만큼 대통령 사저 건립과 생가를 복원을 주도한 건축가와 봉하마을 운영 관계자 등의 심의를 거쳐 설립된 중요 시설이다. 공간 내에는 대통령의 유품과 사진, 추모영상 등 관련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다. 추모공간 마련과 추모 기록 전시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 추모의 집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추모시설의 부지에 2020년 완공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의 설립이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추모의 집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위한 임시 시설이며 추후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은 김해시 사업 주도로 추모의 집 부지에 약 8,092㎡ 규모로 건립될 계획에 있다.

노무현 재단 산하의 사료편찬사업 전담기구인 노무현 사료연구센터는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관리하는 사료편찬사업과 연보 및 참여정부 정책자료 정리, 관련 간행물 발간 등 연구출판사업을 수행한다. 2010년에 출발한 노무현 사료연구센터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과 경남 진영에 임시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노무현사료관은 노무현 재단과 노무현 사료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기록관으로 2013년 1월, 사이트 설립 이후 개편을 통해 노무현 대

통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정확하고 널리 서비스하고자 하였다.

5.3.1 온·오프라인 서비스

노무현재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전시서비스이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봉하마을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이자 퇴임 후 사저가 위치한 곳이다. 이곳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객을 비롯하여 매년 약 100만 명의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봉하마을 방문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회상 및 추모뿐만 아니라 방문을 통한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삶에 대한 변화, 자녀교육 등의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심창섭 외, 2015).

봉하마을 내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출생부터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지냈던 네 군데의 복원 생가가 자리 잡고 있다. 봉하마을의 생가는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고 2009년 9월 말에 완공되었다. 대통령 사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서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평소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어 훗날 사저 기념관으로 운영될 계획에 있다.

노무현사료관을 운영하는 노무현재단은 온라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추모기록을 추모의 집이라는 공간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추모의 집은 대통령의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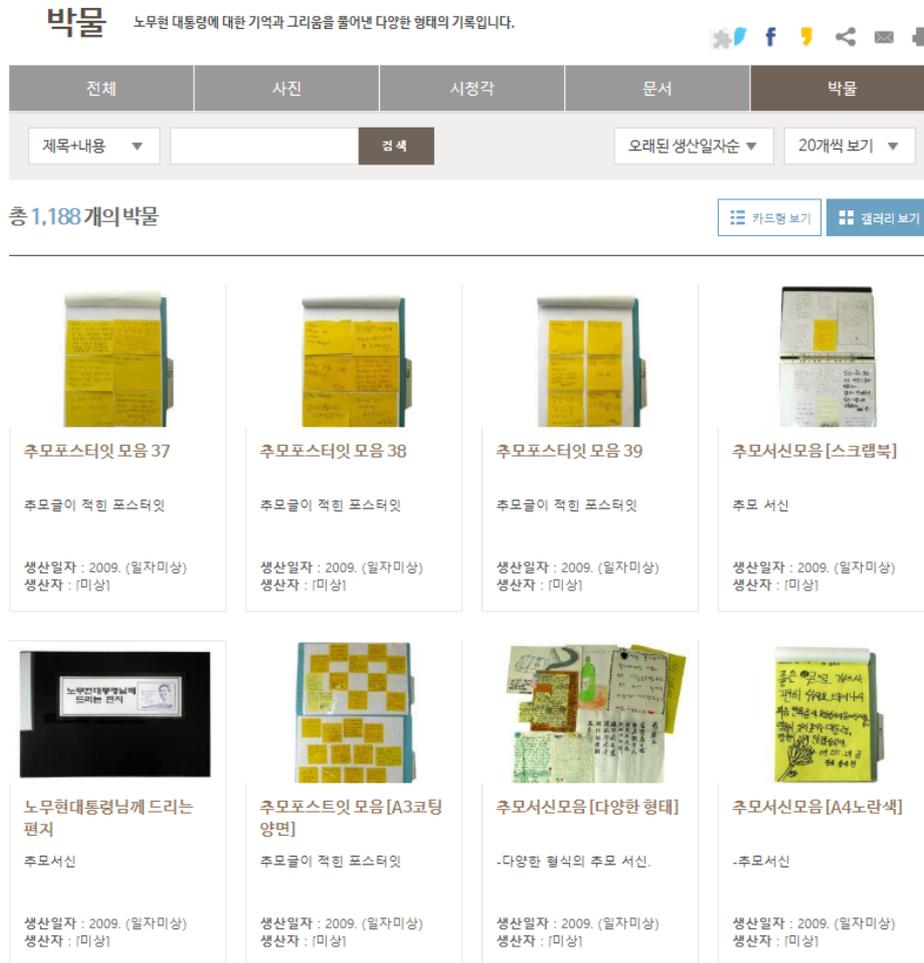
유품과 사진, 기록, 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추모전시 공간이다. 재단은 정식 기념관이 지어지기 전 방문객들이 대통령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도록 2010년 추모의 집을 건립하였다. 추모의 집은 전시실과 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운동 당시 쓰였던 선거포스터와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사와 관련된 기록물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생애 즐겨 타던 자전거와 옷, 모자 등 재임기간 외 일상과 관련된 개인 기록물 역시 전시되어 있다. 노무현 재단은 이와 같이 추모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기록 전시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생산한 추모기록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노무현사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추모기록은 모두 1,365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과 추모식 등의 관련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1,188건의 박물관이다.

박물관기록은 대부분 추모서신, 추모현수막, 추모포스트잇, 추모그림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이 생산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 외에도 대통령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생산하는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확인하기 힘든 노무현사료관의 특징이다. 추모기록을 포함하여 노무현사료관이 현재 소장·관리하여 서비스하는 전체 기록물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5> 노무현사료관 사이트 내 추모기록

구분	전체	사진	시청각	문서	박물관
건수	1,365건	92건	31건	54건	1,188건



〈그림 1〉 시민들이 생산한 추모기록

〈표 6〉 노무현 재단 소장 및 노무현 사료관 서비스 기록물 현황

구분	노무현재단 소장기록물	노무현 사료관 서비스
사진	1,294,727장	27,602건
구술영상	133명/ 368시간	41명/ 10시간 15분
육성	68건/ 약51시간	36건/ 20시간 51분 54초
시청각	7,646건/ 약 2,965시간	1,177건/ 352시간 57분
문서	179,836건	3,251건
도서	5,457권	919권
박물관	3,219건	1,457건
웹기록	6건	6건

* 출처: 노무현 사료관 사이트

노무현 사료관은 위와 같이 많은 양을 소장·관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무현 사료관의 소장 기록물은 정책별, 유형별 그리고 생애별로 분류되어 있다.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은 주제별로 정책보고서(77), 대통령 보고서(298), 정책간행물(70), 국정운영백서(8), 참여정부다큐5부작(5) 그리고 인수위백서(3)로 구분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개인기록인 각종 시청각, 문서, 박물 등의 자료는 수집, 정리되어 온·습도가 일정한 환경에서 보관함으로써 장기보존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무현 사료관의 기록물 보존관리 현황은 통합 대통령 기록관과 같이 대통령기록물법을 내부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김대중 도서관과 같이 노무현 사료관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구술기록을 수집·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술기록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사와 관련된 구술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 또는 지인들의 영상으로 온라인 제공되고 있다.

5.4 기타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윗 절에서 분석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사례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사례다. 현직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총 11명이며 위에서 분석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제외하면 국내에는 총 6명의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회가 운영 중이

다. 비록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하여 규모나 시설 면에서 부족하지만, 훗날 대통령 관련 기관과의 인프라 연계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해당 기념사업회의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또한 개괄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우남소사이어티,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운영 중이다. 해당 기념사업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화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화진포 기념관의 경우에는 고성군청에서 운영을 맡고 있고 이화장의 경우에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06년도에 폐관되었다. 또한, 기념사업회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중이며 사진자료(341건), 논문자료(28건) 등을 등록하고 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해위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념사업회 외에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다. (사)해위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는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직원은 1명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서울 상암동에 개관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기념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 경영철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사업수행의 설립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기념관 및 도서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료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하여 격월간으로 정기 발행물을 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관리하고 공유하고 있다.

박정희 기념·도서관은 면적 5,273㎡(1,591평) 3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전시관, 2층 전시관과 도서관, 3층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이 전체 면적의 55%이며 전시관은 45%로 운영되고 있다. 박정희 기념·도서관은 20년 운영 후 기부채납되어 서울시가 운영될 예정이다. 준공 당시 건물의 용도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신고되었지만 2011년 '대통령기록관 연구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박정희 기념·도서관의 민간 대통령기록관으로서의 기능이나 대통령기록 연구기능, 대통령학 연구지원 기능의 수행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박정희 기념·도서관의 전시서비스는 옥내전시와 옥외전시로 구분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옥내 전시실은 총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총 18년 6개월간의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옥외전시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승용차와 지프차,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을 재현한 포토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박정희 기념재단에서는 박정희 기념·도서관 외에도 박정희 대통령 전자도서관 또한 운영하고 있다. 박정희 전자도서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 등의 국민운동을 통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경제발전과 기술, 문화, 교육, 농업 등의 업적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실증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개관하였다고 개관목적에서 밝히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전자도서관은 정치/외

교, 국방, 산업경제, 과학기술/정보, 사회, 교육 환경, 새마을운동/농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문기사, 잡지기사, 사진, 어록, 도서, 논문, 휘호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문기사 4,400여건, 사진 9,000여점, 어록 680여건 연구자료, 초록 110건, 휘호 215건이 공개되어 있다. 사진자료의 경우 총 7만 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아 우선 9,000여건을 공개하고 있다.

박정희 기념·도서관의 경우에는 다른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과 다르게 많은 사회적 이슈와 함께하고 있다. 다른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경우에는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박정희 기념·도서관의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마찰을 이유로 건립과 운영에 있어 많은 사회 단체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찰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전시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간의 형평성 문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은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과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관련 기록물을 서비스 중에 있으나, 김영삼 민주센터의 경우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는 기록물의 양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의 경우 도서(68건), 논문(28건), 행정박물(128)건의 기록물을 서비스 중에 있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하고 있는 김영삼 기록전시관의 경우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 중에 있으며 1층과 2층 총 두 개 층을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다.

〈표 7〉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명칭	현황	기록물
(사)김영삼 민주센터	- 위치: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 조직: 이사회(이사장 외 이사 8명 및 감사 2명, 상임이사는 1명) 및 사무처 직원 4명	-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18년 개관예정)	- 운영 주체: (사)김영삼민주센터 - 위치: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 시설 내역: 사료실·전시실(지하1층~지상2층), 도서관(지상3층), 거제 출신 대학생 기숙사(지상4~7층), 사무실(지상8층) 등 - 규모: 지하 4층, 지상 8층(6,238㎡)	-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 운영 주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 조직: 직원 3명 - 시설 내역: 기록전시관 및 김 전 대통령 자료 열람실 - 규모: 2층 건물(557㎡)	도서(68건) 논문(28건) 행정박물(128건)

하지만 그 규모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김영삼 기념도서관의 경우 2018년 8월 23일자로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서울 동작구로 기부채납되었으며 2019년 5월에 개관예정이다.

6.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 서비스 비교분석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근거와 같은 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비하여 자유롭고 주체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에 준하는 기록물의 양과 활발한 기관 활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관련 법령에 준하는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다면 더욱더 방대한 활동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된다. 두 기관의 특성은 기록물의 수집·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도 차이를 갖게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 및 수집 기록물의 유형 간 비율 차이를 알 수 있다. 세종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이관되는 기록물의 범위가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생산되는 기록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은 전자와 비 전자 문서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물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박물이 외교를 통한 각국의 선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중 특히 사진기록물이 현저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생산된 문서기록은 대부분 통합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수집 기록물 중 문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경우 기록물의 수집범위가 대통령의 전 반적인 생애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생산되었던 기록물 중 특히 사진기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

김대중 도서관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22건의 적은 양의 소장문서에 비해 43,790장의 사진을 소장·공개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사료관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문서가 3,251건인 반면 1,294,727장의 사진을 소유하고 있으며 27,602건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관련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년기 시절부터 시작하여 정치활동기간, 대통령 재임기간에 생산된 사진과 퇴임 후 시민들과 보낸 여러 행사에 관한 사진 등이 있다. 이렇듯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비하여 사진 기록물을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 볼 수 있다.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민간 아카이브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 기록 기관보다 자율적인 반영과 운영이 가능하다.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대부분의 기록물을 철로 관리하기 보다는 전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기관의 기록물의 활용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특정 대통령에게 편중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록의 전시 서비스에 있어 대통령 간 형평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특징은 오히려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거나 대통령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하는데 장애요소가 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위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는 반면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이 대표적 특징으로 기록을 활용하고 서비스하는 데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사저 건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건축가와 직접 의견을 공유하였

다.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대통령의 관념과 인식이 고스란히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인 것이다. 즉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은 기록물의 특징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록 서비스를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별로 특화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는 추모기록의 유무이다. 세종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을 위한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법 제6조에 의거하여 권한에 속하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특성 때문에 추모기록을 수집·관리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민간 대통령기념관·도서관은 기관의 운영 자체가 개별 대통령의 지지자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추모기록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된다. 민간 대통령 기념관·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여러 유형의 추모기록이 온·오프라인으로 생산·관리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추모기록이 기관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추모기록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이를 보존·관리하는 점은 세종시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민간 대통령 기념관·도서관만의 특징이다. 노무현 사료관의 추모기록은 생산주체가 시민이라는 점과 기록물 유형이 다양하면서 동종 다량의 기록물이 많다는 점이 있다. 노무현 재단은 추모기록물을 개인이나 단체가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생산, 수집한 기록물이나 추모제 및 추모의식 등

〈표 8〉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기념관·도서관의 비교

구분	기관별 소장 기록물 유형별 보유현황				기록물 수집 범위
	문서	시청각물	박물	도서 및 연구자료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1,747,769 (비전자) 1,896,378 (전자)	4,078,608	16,307	34,107	대통령 재임 기간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	341	-	28	대통령의 생애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	13,400	-	122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	-	128	96	
김대중 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22	43,791	-	-	
노무현 사료관	179,836	1,302,441 (구술영상 133명)	3,219	5,457	

에서 생산, 수집된 기록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기록물의 수집에 있어서 특히, 추모기록은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 수집이 지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 계획 또한 지능 유도와 지능 방법,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수집대상이 바로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보유한 기록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추모기록은 추모라는 행위가 감정적이며 단순한 애도 행위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그동안 추모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세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추모기록물은 애도라는 본 목적 이외에도 생산자가 사회적 추모를 통해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상당 부분 드러내고 있다(김진수, 2016). 추모기록은 망자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업적, 개인적 특성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과 대통령 간의 지속적인 감정적 연대

관계를 이어가게 한다. 추모기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는 구별되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추모기록물은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단순히 업무의 행위만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의 문헌기록 위주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추모기록의 대체 역사의 속성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건의 여러 정황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추모는 망자 개인의 자취를 회고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공식적 기억인 동시에,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과정이며 집단기억을 재현할 수 있게 한다. 즉, 추모기록은 개인적인 기억과 감정의 재현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동화와 집단적 공유를 통해 공적인 기억으로 귀결되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 가치에 부합하도록 수렴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지닌 추모기록

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위해 노무현 사료관 등의 기관을 바탕으로 추모기록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기관별 개인 기록물 수집의 차이이다.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개인 기록물을 수집·관리할 수 있다. 이는 한 명의 대통령기록물에 치우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아직까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개인 기록물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정용오, 2011). 또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개인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개인 기록물만을 의미하므로 특정 대통령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개인 소장 기록물의 수집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특정 대통령에 대한 전문성과 지지자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기록물의 수집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특정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개인적인 추모기록과 함께 구술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을 통해 많은 구술기록을 생산하고 기증하고 있다. 김대중 도서관의 경우 2005년부터 동영상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김대중 대통령의 지인과 측근들이 참여한 21개의 동영상 구술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노무현 사료관은 368시간에 달하는 133명의 구술기록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41명의 구술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구술기록은 행위에 대한 맥락을 실어주는 기록으로써 대통령 개인과 한국현대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다

양하고 풍부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구술기록을 통해 동시대의 주요한 사회상을 기억으로 보존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그 중요성과 양이 방대하여 구술채록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구술기록을 통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담기 위해서는 구술기록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특정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기록을 활발하게 수집·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민간 대통령기념관·도서관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차이점이다.

7. 결 론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두 기관의 간 운영 및 서비스 측면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담보에 대해 보이는 두 기관 간의 차이점이다. 먼저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모든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이 매우 중시되어 운영되고 있다. 반대로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경우 과거, 해당 대통령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보이는 독립성 혹은 자율성 유무는 곧 기관의 기록물을 활용한 서비스 및 전시 프로그램 제공, 공개·열람 등의 측면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기록물 수집 측면에 있어서 보이는

큰 차이점과 이에 따라 기관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이다.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기록물의 수집 범위이다.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경우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달리 대통령의 전 생애에 걸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하여 시민이 생산한 개인 기록물 역시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민간재단과 그 지지자들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민 소유의 대통령 개인 기록물의 수집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비해 수월하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생산한 대통령 관련 개인 기록물 수집의 활성화에도 위 사항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추모기록, 구술기록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 재임 기간이라는 한정범위 내 기록수집과 비교하였을 때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은 수집범위와 주체에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다양한 유형과 주체의 기록수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특징이 적극적인 기록콘텐츠 개발과 연구에 활용된다면 현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지닌 한계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전문적인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의 배치와 예산 확보, 법적 기준 등 인력, 운영, 예산 측면 등의 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협력 관계를 도모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특히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내 대통령기록물의 미래와 가치가 보존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강민정, 이승희 (2015).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6, 233-286.
 국가기록원 (2007).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대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13). 국가기록백서. 대전: 국가기록원.
 김건, 김태영, 배삼열, 이은진, 김용 (2013).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다중지능이론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99-125.
 김솔 (2013).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59-79.
 김은실, 오효정, 최민정, 김용 (2017).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01-128.
 김지수 (2008). 대통령 구술기록 수집방안-김대중 대통령 구술 수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지현 (2013).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225.
- 김진수 (2016). 추모기록물 수집전략에 관한 연구-세월호 추모기록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태영, 김건, 심갑용, 김용 (2014).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83-115.
- 대통령기록관 (2011).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 중·장기 개발 계획. 세종: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관 (2013). 2013 온라인콘텐츠 개발계획. 세종: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관 (2015).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세종: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관 (2018). 개별 대통령기록관 모델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세종: 대통령기록관.
- 방기영, 이능금, 이유진, 한아람, 김용 (2015).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25-48.
- 손성호 (2008). 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송나라, 이성민, 김용, 오효정 (2017).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록학연구, (51), 89-132.
- 송나라, 장효정, 최효영, 김종혁, 김용 (2016). 체험경제이론(4Es)을 적용한 대통령기록관 어린이 체험 전시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9-40.
- 심갑용, 임지훈, 박종욱, 송나라, 장효정, 김용 (2015).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교육 서비스 모형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127-155.
- 심창섭, 정철 (2015). 다크투어리즘과 죽음-봉하마을 관광경험의 근거이론적 분석. 관광학연구, 39(5), 11-26.
- 염지은 (2017). 한국 대통령기록관의 온라인전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이완수, 유재웅 (2012). 대통령 죽음의 재현방식: 온라인 추모글에 나타난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죽음. 한국언론학보, 57(2), 80-101.
- 이재나, 유현경, 김진 (201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통령기록관 전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87-114.
- 이정현, 이윤용, 방기영, 김용 (2015). Linked Open Data기반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 서비스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55-82.
- 이혜영 (2011). 기록관 웹사이트 검색어의 분석과 활용.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93-112.
- 이혜원, 이혜영 (2015). 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19-245.
- 장효정, 송나라, 최효영, 김용 (2015). 집단탐구(GI)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대통령기록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51-81.
- 정상화 (2008).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 전략-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

대학교

- 정용오 (2011).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조민지 (2006).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57-184.
- 조민지 (2009). 미국대통령기록관의 역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213-256.
- 최민희, 최정원, 한혜원, 김용 (2016).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G-learning 모바일 콘텐츠 개발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261-284.
- 최정원, 강주연, 박준형, 오효정 (2016). 공공기록관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이용자 관심도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2), 135-156.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김대중도서관 <https://www.kdlibrary.org>
-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http://www.kysarchives.or.kr/>
- 노무현사료관 <http://www.knowhow.or.kr/>
- 대통령기록관 <http://pa.go.kr/portal/com/viewMainPage.do>
- 박정희대통령기념관 <http://www.presidentparkchunghee.org/>
- 박정희대통령전자도서관 <http://www.parkchunghee.or.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ng, Ki Yeong, Lee, Neung Geum, Lee, Yu Jin, Han, Ah Rang, & Kim, Yong (2015). A Study on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Web-Archival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4), 25-48.
- Choi, JungWon, Gang, JuYeon, Park, JunHyeong, & Oh, Hyo-Jung (2016). A Study on Social Media Usage of Government Archival Services and Users' Interestedness: Focused 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2), 135-156.
- Choi, Min Hui, Choi, Jung Won, Han, Hye Won, & Kim, Yong (2016). A Study on Method to Develop Mobile Contents for G-learning Using the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Digital Storytell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261-284.
- Eom, JiEun (2017). Improvement plans for online exhibitions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 Korea. A master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Graduate School, Kyo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Jang, Hyo-Jeong, Song, Na-Ra, Choi, Hyo-Young, & Kim, Yong (2015). A Study on Development of Experience Education Model Based on GI Cooperative Learning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51-81.
- Jeong, Sang-hwa (2008). Acquisition Strategy of President Related Records -Focused on President Lee Seung-man's Record Case. A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nglish,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Jeong, Yong-oh (2011). A study on the building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of records. A master's thesis. Major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Department of Records & Archive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Jo, min ji (2006). A Case Study on the Service Programs at the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157-184.
- Jo, min ji (2009). A Study on the American Presidential Libraries focusing on dysfunc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0, 213-256.
- Kang, Min-Jung & Lee, Seung-hwi (2015).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of Presidential Libraries and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233-286.
- Kim, Eun-Sil, Oh, Hyo-Jung, Choi, Min-Jung, & Kim, Yong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Using the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7(2), 101-128.
- Kim, Geon, Kim, Tae Young, Bae, Sam Yeol, Lee, Eun Jin, & Kim, Yong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Using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the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99-125.
- Kim, Jihyun (2013). A Study on Research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2), 201-225.
- Kim, Jin su (2016). A Study on Collecting Strategy of Cherish Paper - Focusing on Cherish Paper of the Ship Sewol-ho Catastrophe -. a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Information & Recor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Jisu (2008). A Scheme for Collecting Presidential Oral Histories - Focus on the Kim Daejung

- presidential oral history project -. a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Myongji University.
- Kim, Sol (2013). Application of Online Content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Elementar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59-79.
- Kim, Tae Young, Kim, Geon, Shim, Gab-Yong,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Methods to Improve the Research Support Service in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2), 83-115.
- Lee, Hyewon & Rieh, Hae-young (2015). Tour Program in Archives: Case Study for the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3), 219-245.
- Lee, Jae-Na, Yoo, Hyeon-Gyeong, & Kim, Geon (2015). A Study on Exhibi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Using Storytel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3), 87-114.
- Lee, Jeong Hyeon, Lee, Youn Yong, Bang, Ki Young, & Kim, Yong (2015). A Study on the Extens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Linked Open Data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2), 55-82.
- Lee, Wan Soo & Yoo, Jae Woong (2012). Online Memorials: Representing the Deaths of South Korean Presidents Roh Moo-Hyun and Kim Dae-Jung. *Korean Journalism Association*, 57(2), 80-101.
- Rieh, Hae-Young (2011). Analysis and Utilization of Search Terms in Archival Web Sites: A Case Study of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93-112.
- Shim, Chang Sup & Jeong, Chul (2015). Dark Tourism and Death: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Bongha Villiag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9(5), 11-26.
- Shim, Gab-Yong, Lim, Ji-Hoon, Park, Jong-Ok, Song, Na-Ra, Jang, Hyo-Jeong, & Kim, Yong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ervice Models Using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Ubiquitous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1), 127-155.
- Son, Sung-Ho (2008). A Study on the Ways of Collecting Presidential Records in Private Possession. A master thesi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Song, Na-ra, Jang, Hyo-Jeong, Choi, Hyo-Young, Kim, Chong-Hyuck, & Kim, Yong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xperiential Exhibition Program for Children about

-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the Experience Economy (4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9-40.
- Song, Na-Ra, Lee, Sung Min, Kim, Yong, & Oh, Hyo-Jung (2017). A Study on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1), 89-132.
-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7).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Daeje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3). A national record white paper Daeje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2011). Presidential Records Online Content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Sejong the Great: Presidential Archives.
-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2013). 2013 Online Content Development Plan. Sejong the Great: Presidential Archives.
-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2015). A Study on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Sejong the Great: Presidential Archives. Sejong the Great: Presidential Archives.
-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2018). A Study on the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Model and System Improvement. Sejong: Presidential Archives. Sejong the Great: Presidential Archives.